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섰었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등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들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不動)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옆에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神)을 뒀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크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 사이 좋게 지니고 산다.

-김광섭, 「산」-

(나)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㉔ 터덜거리며 걸어간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㉕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㉖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희덕, 「산속에서」-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3연에서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가)의 6연과 7연에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강조한다.
- ③ (가)의 1연에서는 비유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표현한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가진 인식을 드러낸다.
- ⑤ (가)의 6연에서는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32. ㉔,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피신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띠는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② ㉕는 '길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하여 도발하는 무자비한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③ ㉔는 짐승들이 놀랄까 봐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는 점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연의 이미지를, ㉕는 '먼 곳의 불빛'을 통하여 인간을 미혹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④ ㉔는 '신경질'을 낸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㉕는 '막무가내의 어둠'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공할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⑤ ㉔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점에서 친숙한 자연의 이미지를, ㉕는 '어깨를 감싸 준다'는 존재를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깨달음을 주는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33.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산'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드러내며, 하루 종일 인간 세상을 조용히 감싸는 산의 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㉒은 '달아나'는 '사람'들보다 '산'이 먼저 앞서간다는 데에서 '산'이 지닌 오만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㉓은 '산'이 '봄'과 '여름'의 두 계절을 조화롭게 포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㉔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㉕은 삶을 살아갈 희망이 생겼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는 산에 인격을 부여하고 배려와 포용으로 점철된 산의 모습과 산이 지닌 여러 속성들을 통해 인간이 가져야 할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우친다. 또한, 산이 지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어 새로운 관점으로 산을 바라보고 있다. (나)에서는 화자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삶에 원동력을 부여하는 존재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① (가)의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산은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한탄하고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산의 고고한 덕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길을 잃어' 본 사람만이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존재는 고된 삶에 원동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사람을 다스린다'는 산의 모습에서, 사람을 통솔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데서 스승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나)의 '작은 지붕'을 발견한 것은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데서 위로를 전해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된다는 것은 산이 지닌 여러 속성들을 통해 인간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나)의 '막무가내의 어둠'은 그동안 몰랐던 인간의 소중함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깨닫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낸다는 것은 산이 지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어 새로운 관점으로 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의 '먼 곳의 불빛'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삶에 원동력을 부여해준다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